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8.(수) 배포 2024. 2. 28.(수) 11:30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베트남 야생식물종자의 안전한 보전을 위한 첫발!

- 맹그로브 등 보전이 시급한 야생식물 종자 174점 시드볼트 중복저장-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하 한수정)은 베트남 중요 야생식물 종자 7종 174점을 시드볼트에 처음으로 중복보전한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산림과학원(Vietnamese Academy of Forest Sciences)과 체결한 베트남 야생식물종자 보전에 관한 업무협약 후속예 따라 베트남 산림과학원과 베트남 산림위원회(Management Board for Forestry Projects)가 보유한 베트남 야생식물 종자를 시드볼트에 기탁받았다.

특히, 이번에 기탁받은 종자 중에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나 기후위기 완화의 핵심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와 자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식물인 ‘맹그로브’ 종자 등 보전이 시급한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한수정 관계자는 “이번 중복보전사업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의 국제원조사업 중 베트남 맹그로브사업단의 도움과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며 “앞으로 산림청의 국제협력 정책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업무를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현재 전 세계 야생식물종자 5.7만여 종 24만여 점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종자보전 관련 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 방안, 종자의 안전한 중복보전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도출했다.

또한, 조지아·아르메니아·파라과이·중국 등 서아시아를 비롯해 동아시아·중남미 국가와의 신규 협력을 확대하고, 국외 종자를 추가 저장(2.8만여 점)해 글로벌 종자보전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중복보전 인지도 제고 및 종자저장을 위한 채널 일원화 등 효율적인 시드볼트 운영을 위한 홍보·소통 채널인 영문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전세계 국가·기관들과 함께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 종자의 안전한 저장을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중복저장은 동남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산림청과 연계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야생식물종자 보전의 허브(Hub)로써 그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	책임자	센터장	배기화 (054-679-2768)
		담당자	주 임	김영빈 (054-679-0815)



사진자료



1.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모습



2.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이(왼쪽에서 네 번째) '23년 12월 20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한 베트남산림위원회 종자 기탁식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